한국청소년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2016. Vol. 27. No. 1. pp. 95~124.
ISSN 1225-6336(Print) / 2288-8799(Online)
http://dx.doi.org/10.14816/sky.2016.27.1.95

생존분석을 적용한 고등학생의 최초 아르바이트 경험 시점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

이기혜* · 심재휘** · 우선영***

초 록

이 연구는 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청년패널조사(YP2007) 1-4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 및 시기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하여 연속시간 생존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재학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 않고 있으며,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고1~고2 시점의 여름방학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결과, 가구소득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고등학생들이 보다 빠르게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참여는 지역규모가 클수록 그 시기가 늦어졌으며, 중학교 3학년 때의 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고등학교 입학 이후 아르바이트를 보다 빨리 경험하였다. 한편 중학교 3학년 성적이 아르바이트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계고 학생들보다는 일반계고 학생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아울러 학교생활 만족도는 아르바이트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교육기회나 결과에 있어 열악한 환경에 속한 학생들일수록 아르바이트 참여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는 한국사회에서 아르바이트 참여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이들의 향후 진로계획에 유의미한 경험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청소년 아르바이트, 학습 결손, 학교생활 적응, 생존분석

*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교신저자, premier110@hanmail.net
** 고려대학교 석사수료
*** 고려대학교 박사수료

Ⅰ. 서 론

청소년의 재학 중 아르바이트 참여율이 점증하고 있다. 2010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15세~18세 청소년의 20% 이상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바 있으며, 최근 조사에서도 근로 가능 연령대의 청소년 중 25%가 한 번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안선영, 황여정, 이수정, 이로사, 2014). 이처럼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주로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점점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청소년의 재학 중 아르바이트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각은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이 상존하고 있다. 일군의 학자들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자립심과 독립심을 고양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사회경험을 통해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배우며 자신의 미래 진로 설정과 직업선택에 대한 탐색의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직업가치관 형성에 기여한다고 밝혔다(D'Amico, 1984; Mihalic & Elliott, 1997; Mortimer & Johnson, 1998; Montimer, Finch, Ryu, Shanahan & Call, 1996; Ruhm, 1997; Staff & Mortimer, 2008).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재학 중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학업성적의 하락, 학교부적응, 청소년 비행 가능성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기헌, 2003; 박창남, 도종수, 2007; 유성렬, 2005). 아울러 단순히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따른 영향보다는 아르바이트 동기, 고용 환경,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가족의 지원 등에 따라 그 경험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도 제기되었다(한경혜, 2000; Hansen & Jarvis, 2000).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맥락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에서 한국사회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을 감안한다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은 대개 그들의 학업 또는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김기헌, 2003). 예컨대,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의 폭이 제한적이고 이들의 고용안정성은 대체로 낮기 때문에(안선영 외, 2014)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이들의 진로설계나 미래의 직업탐색에 대한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아울러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체불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안선영 외, 2014; 조금주, 2010) 이러한 경험이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 무엇보다 다수의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위해 학업에 매진하는 입시현실을 고려할 때, 아르바이트 경험은 학습시간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로 '공부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고 있는 데서도(안선영, 김희진, 강영배, 배경내, 2013)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적어도 학업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전술한 맥락에서 청소년이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통해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된다면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 천착할 필요가 제기된다.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거나(김기헌, 2003; 김기헌, 유성렬, 2006; 박창남, 도종수, 2007; 한경혜, 2000; 황나영, 이자형, 2011)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 또는 노동시간 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는 방향(김기헌, 유성렬, 2006; 김예성, 2006; 김종성, 이병훈, 2010; 도종수, 2001; 양정호, 2004; 유성렬, 2010; 황나영, 이자형, 이기혜, 2012)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이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가 횡단자료를 이용하여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거나 또는 참여 여부나 참여 시간 등 양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 시작 시기가 빨라지고 있고(김예성, 2006; 안선영 외, 2013), 이전의 경험은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김기헌, 유성렬, 2006; 김종성, 이병훈, 2010), 어떤 특성을 가진 청소년이 더 이른 시기에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지, 청소년이 주로 어느 시점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의 질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법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연령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분석 방법(survival analysis)을 적용하여 아르바이트 최초 경험 시점에 대한 영향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면,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최초 경험 시점의 경향성을 밝히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함으로써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이 갖는 사회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수행된 청소년 아르바이트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될 것이며, 분석 결과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도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이해

아르바이트의 사전적 의미는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돈을 벌기 위하여 학업이나 본업 이외에 하는 일'로, 학업을 본업으로 하는 청소년에게 재학 중의 노동은 '아르바이트'로 간주될 수 있다(박창남, 도종수, 2007).

일반적으로 본업이 아닌 가외의 일을 학업과 병행한다는 점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일견 부정적일 수 있으나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에서는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Mihalic & Elliott, 1997; Mortimer & Johnson, 1998; Staff & Mortimer, 2007). 구체적으로 Mortimer et al.(1996)은 청소년의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에게 책임감과 독립심을 길러주고, 이후 구직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D'Amico(1984) 역시 고등학생의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생들의 중퇴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고, 평균보다 높은 학업 수준을 성취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의 의미를 고찰한 국내 일부 연구에서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장점과 재능을 발견하였거나 자신감이 높아지고, 책임감이 생기는 등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한경혜, 2000; 황나영, 이자형, 2011).

그러나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 내에서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대다수의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여 학업에 매진하는 경향이 강한 한국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적어도 이들의 학업과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

년의 아르바이트의 부정적 효과를 보고하는 선행연구는 대개 학업성취와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 등에 주목하고 있다(김기헌, 2003; 박창남, 도종수, 2007; Lee & Staff, 2007; Singh, Chang & Dika, 2007). 구체적으로 김기헌(2003)은 학생들의 시간제 취업이 고등학생의 현재 학업성적에 부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Singh et al.(2007)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교적응과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학생의 장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이들의 비행 및 일탈 행위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장시간 아르바이트 경험은 비행 확률과 약물남용 수준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Mortimer, Finch, Shanahan & Ryu, 1992).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 연구에서도 발견되는데, 한경혜(2000)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도 아르바이트가 비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지 않은 채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유흥가에 출입하는 등의 비행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그들의 심리적응과 정신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고 밝혀(Mortimer et al., 1992),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이들의 심리와 정서 등의 비인지적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관련 변인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청소년의 학업, 학교생활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어떤 특성을 가진 청소년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르바이트에 할애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된 변인은 주로 개인적 특성과 가정배경, 학교 특성 및 학교생활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관련 개인특성 및 가정배경

먼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과 관련된 개인 배경 변인으로 성별이 거론된다. 선행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나 아르바이트 시간을 결정하는 데 성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김종성, 이병훈, 2010; 유성렬, 2010; 장원섭, 2001). 그러나 성별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일부 연구에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inch, Shanahan, Mortimer & Ryu, 1991; Hirschman & Voloshin, 2007).

다음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 또는 아르바이트 시간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거나 참여하더라도 노동시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양정호, 2004; 유성렬, 2005, 2010; 장원섭, 2001; 황나영 외, 2012; Staff & Mortimer, 2007). 질적 연구를 수행한 황나영과 이자형(2011)도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부모의 교육수준 역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예성, 2006; 유성렬, 2005, 2010; Bachman, Staff, O'Malley, Schulenberg & Freedman-Doan, 2011). 유성렬(2005)의 연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의 부와 모의 교육수준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의 부와 모의 교육수준보다 낮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의 이후 연구(2010)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의 부모 각각의 교육수준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학생의 부모 각각의 교육수준보다 낮았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 여부에 따른 부모의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부모의 교육수준이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성(2006)의 연구에서도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따른 특성 비교 결과 부모의 교육수준의 평균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아르바이트 경험을 결정하는 데 부모의 교육수준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부모의 교육수준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다.

가정 내에서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한경혜, 2000; 황나영 외, 2012; Roisman, 2002). 황나영 외(2012)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부모-자녀 사이의 이해, 대화 정도 등으로 구성한 가정의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노동시간에 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적정한 아르바이트 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도 아르바이트 참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선행연구는 거주지역의 효과에 대해서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생이 주로 참여하는 아르바이트 직종은 카운터 및 서빙과 전단지 돌리기, 배달과 같이 서비스업과 관련되어 있다(임영식, 남기성, 조금주, 정경은, 김윤나, 2011; 한경혜, 2000). 이러한 서비스 직종의 일자리는 대도시에서 더욱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도시의 규모는 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철위, 박창남과 정혜영(2000)은 대도시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중·소도시, 군지역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보다 아르바이트에 많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도종수(2001)도 큰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일수록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높았다고 제시한 바 있으나 양정호(2004)는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처럼 도시규모가 클수록 아르바이트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도시규모의 효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2)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관련 학교특성 및 학교생활 변인

학업성취도는 학교생활의 인지적 결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변인이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학업성취 간 관련성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주로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아르바이트 참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김기헌, 유성렬, 2006; 김종성, 이병훈, 2010; 양정호, 2004; 유성렬, 2005, 2010; Mortimer & Finch, 1986; Warren, LePore & Mare, 2000). Warren et al.(2000)은 성취수준이 낮은 학생은 스스로 학업보다는 노동에 본인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

하여 더 많은 시간을 아르바이트에 할애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횡단자료를 이용하여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학업성취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는 두 변수 간의 인과적 관계 설정이 중요한 이슈인데, 이런 점을 고려하여 김기헌과 유성렬(2006), 유성렬(2010)은 이전 학업성취를 설명변수로 활용한 바 있다. 두 연구의 분석 결과 모두 이전 학업성취는 아르바이트 경험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낮은 성취수준을 갖는 학생일수록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일군의 학자들은 학교생활 적응 역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 및 시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김예성, 2006; 황나영 외, 2012). 구체적으로 김예성(2006)은 학교적응이 아르바이트 경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유사한 맥락에서 황나영 외(2012)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일수록 아르바이트 시간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한편, 학교의 구조적 특성으로 볼 수 있는 학교 유형 역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 및 노동시간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다수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생이 전문계가 아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비해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예성, 2006; 도종수, 2001; 양정호, 2004; 유성렬, 2010; 장원섭, 2001).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고등학생의 최초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 유형이 중요한 설명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최초 아르바이트 참여 시점을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집한 청년패널조사2007(Youth Panel 2007)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청년패널조사는 만15~29세 청년층을 표본으로 하여, 이들을 추적 조사함으로써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광범위

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다양한 연령집단을 함께 추적 조사함으로써 연령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 및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해당 자료에서 만15세 코호트를 분석대상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대상 설정은 근로기준법[2]을 근거로 한다. 해당 법령은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기간에 아르바이트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기에 고등학교 입학 이후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와 관련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어 왔다(김기헌, 2003; 양정호, 2004). 한편 청년패널조사의 표본 또한 1차년도 조사 시점에 만15세인 집단이 최저연령을 형성하고 있는 바, 해당 연령집단의 고등학교 생활을 추적 조사한 자료를 얻기 위해 1~4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실제로 만 15세 코호트는 2-4차년도에 고등학생에 해당하지만 중학교 때의 경험이 고등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확인하고자 1차년도 데이터를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선별 과정을 거쳐 1차년도 조사 당시 만15세였던 705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변인설정 및 연구모형

1) 종속변인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여부와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고등학교 입학 이후 최초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시점까지의 기간과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를 함께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는 기간 내 아르바이트에 참여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변수로 처리하였다. 종속변수의 값이 0인 사례에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아르바이트에 참여하지 않은 우측중도절단(right censored)된 사례와 추적 조사 중 표본에서 이탈하여 더 이상 관찰할 수 없는 임의중도절단(random censored)된 사례가 혼재되어 있다. 다음으로 최초 아르바이트 참여

2)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시점까지의 기간은 고등학교 입학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월 단위로 조사된 응답값을 계산하여 투입하였으며,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탈된 표본의 경우 이전차수 조사시점까지의 기간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최초 참여까지의 소요기간은 고등학교 입학 시점인 3월에 바로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경우 최소 0개월, 고등학교 3년간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 최대 33개월까지 계산될 수 있다[3].

2) 독립변인

연구모형에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선정된 독립변인들을 투입하였으며, 이는 학생의 가정배경 변인, 학교생활 관련 변인으로 대별될 수 있다.

먼저 성별을 비롯하여 학생의 가정배경 변인으로 부모학력, 가구소득, 거주지, 부모와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성별은 남자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여자에게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인으로 변환하였다. 다음으로 부모학력 및 가구소득을 투입하였다. 부모학력은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로 조사된 문항을 0, 6, 9, 12, 14, 16, 18, 21의 값으로 환산한 교육연한을 투입하였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균등화지수를 계산하였다. 이 지수는 가구원이 추가될 때마다 필요소득이 증가하지만 그 폭이 점차 감소함을 고려한 것으로, 다양한 계산방식이 있지만 대체로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에 제곱근을 취한 값으로 나눈 값을 사용한다(조경엽, 유진성, 2013). 거주지의 경우 해당 자료에서 조사 단위를 특별시, 광역시, 이외지역 정도로만 구분하고 있어 이외지역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특별시와 광역시의 효과를 나타내는 더미변인들을 생성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의 관계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성적, 진로, 친구관계에 대해 가지는 관심 정도를 묻는 5점 척도의 문항을 평균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학교생활 변인으로는 학업성취, 학교계열, 학교생활 만족도, 교우관계를 모형에 투입하였다. 학업성취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4년간 1학기 성적을 묻는 문항을 이용하였다. 청년패널조사는 해당 학년의 1학기 성적을 ①상위권

3) 연구종료 시점이 33개월인 것은 해당 패널조사의 4차년도 조사가 10~12월 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 시점을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2008년 3월~2010년 12월까지로 제한되고 있다.

(~10%), ②중상위권(11~30%), ③중위권(30~70%), ④중하위권(71~90%), ⑤하위권(91~100%)으로 범주화한 것을 역코딩하여 투입하였다. 해당 변인을 그대로 분석모형에 투입하되, 중학교 3학년 때 성적은 별도로 투입했으며 고등학교 3년간의 성적은 시간의존변인으로 처리하였다. 중학교 성적은 학생의 입학하는 고등학교의 유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고등학교 생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학교 급별 학업성취를 별개의 변인으로 투입한 것이다. 학교계열은 일반계고, 특목고, 상업계, 공업계, 기타 전문계, 예체능계, 기타학교 등으로 구분된 문항에 대하여 상업계, 공업계, 기타 전문계에 해당하는 사례에 1의 값을 부여함으로써 전문계고와 이외 학교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했다[4]. 마지막으로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만족도의 경우 고등학교 1~3학년에 조사된 5점 척도의 문항을 시간의존변인으로 처리하여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전자는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후자는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 해당한다. 한편 이러한 학교생활적응 변인들은 해당 자료에서 2차년도부터 조사되고 있는바 중학교 3학년 때의 학교생활적응 변인들은 모형에 투입하지 못하였다. 시간의존변인으로 투입된 변수들은 매학년마다 응답값이 다르고 종속변수와의 관계 또한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1학년(0~12개월), 2학년(13~24개월), 3학년(25~33개월) 조사시점의 응답값을 구간별로 모형에 투입하도록 설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성적과 학교생활적응 변인에 결측값을 가지는 사례가 일부 존재한다. MAR(Missing At Random) 가정에 따르면 개별 사례의 결측치는 다른 변인들과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때 결측치가 있는 사례를 단순히 목록삭제(listwise delete)하는 것은 표본의 축소를 야기하여 통계적 검정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표본의 대표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Rubin, 1987). 이에 본 연구에서는 5회의 다중대체(multiple imputation)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세트를 이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각 데이터세트에서 산출된 변수의 기술통계량과 모형의 추정치는 Allison (2001)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하나의 값으로 통합하였다. 다중대체를 통해 이상 정리된 독립변인들의 기술통계치는 아래의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4) YP2007 자료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고교체제가 정비되기 이전에 조사된 자료인바, 본 연구에서는 현재 특성화고에 해당하는 고교의 명칭을 전문계고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표 1

독립변인의 기술통계치(n=705)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성별(1=여성)	0.450	0.407	0	1
부학력	13.392	2.543	0	21
모학력	12.655	2.096	0	21
균등화가구소득	165.501	77.184	0	1010.459
거주지				
특별시	0.210	0.407	0	1
광역시	0.397	0.489	0	1
부모와의관계	3.881	0.571	1	5
학교계열(1=전문계고)	0.181	0.385	0	1
성적				
중학교3학년	3.427	1.011	1	5
고등학교1학년	3.992	0.958	1	5
고등학교2학년	3.429	0.942	1	5
고등학교3학년	3.451	0.942	1	5
학교생활 만족도				
고등학교1학년	3.627	0.735	1	5
고등학교2학년	3.631	0.684	1	5
고등학교3학년	3.648	0.703	1	5
교우관계 만족도				
고등학교1학년	4.013	0.701	1	5
고등학교2학년	3.933	0.631	1	5
고등학교3학년	3.968	0.656	1	5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가정배경 및 학교생활 변인들이 최초 아르바이트 참여 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관찰은 조사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때 표본이탈 등으로 인해 중도절단자료(censored data)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단자료의 특성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생존분석은 중도절단 여부를 고려하여 연구자가 관찰하고자 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생존시간(survival time)을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생존분석에서 종속변인의 형태는 생존확률과 위험확률로 표현된다. 생존확률은 특정 시점(t)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뜻하며, $S(t)=\Pr(T>t)$의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로 정의된다. 이때 중도절단 된 사례가 없을 경우 생존확률은 전체 집단에서 t시점의 생존자수의 비율과 일치한다. 다음으로 위험함수(hazard function)는 관찰기간 중 특정시점까지 생존한 개인이 직후에 사건을 경험할 조건부 확률을 뜻한다. t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수식으로 나타낸 위험함수는 다음과 같다.

$$h(t)=\lim_{\Delta t\to 0}\frac{\Pr(t\le T<t+\Delta t \mid T\ge t)}{\Delta t}$$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아르바이트 참여 시점은 월 단위로 조사되고 있어 관찰 단위가 연속적인 것으로 볼 있다. 연속시간 생존분석에는 일반적으로 Kaplan-Meier(KM) 방법과 콕스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이 이용된다. 콕스비례위험모형은 종속변인의 분포에 대하여 특정한 가정을 적용하지 않는 비모수적 방법으로 생존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일반적인 다변량분석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콕스비례위험모형은 종속변인의 기저함수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 KM 방법을 통해 설명변인을 포함하지 않은 자료의 생존함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콕스비례위험모형의 회귀식은 $h(t)=h_o(t)\exp[\beta_1X_1+\beta_2X_2+...+\beta_pX_p]$로 표현되는데, 로지스틱 모형(logistic model)과 마찬가지로 지수함수를 취하기 때문에 설명변인의 계수를 가지고 위험비(hazard ratio)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콕스비례위

험모형에서 추정된 변인의 회귀계수는 모든 시점에서 위험함수에 일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되기에 개별 변인에 대한 비례위험가정(proportional hazards assumption)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득의 효과가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선험적 기대에 따라 설명변인의 PH가정을 검정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집단을 층화하는 층화콕스모형(stratified Cox model)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모든 개인의 생존시간을 다르게 처리하여 계수를 추정하는 콕스비례위험모형의 경우 동일한 생존시간을 가지는 개인들이 존재할 경우 모수추정의 편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생존시간을 가지는 개인들의 가능한 조합을 모두 고려하는 Efron방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최초 아르바이트 참여 시점에 대한 기저생존함수

고등학생의 최초 아르바이트 참여 시점까지의 생존확률을 확인하기 위해 고교 입학 시점부터 졸업시점까지 0~33개월의 기간에 대해 1개월 간격으로 생존함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만15세 코호트의 11.06%가 고등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음을 확인하였다. 중도절단된 627명의 응답자 중 582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 않았으며, 45명은 추적 조사 중 표본에서 이탈하였다.

표 2
아르바이트 참여 관련 사례 수

전체	아르바이트 참여	중도절단	중도절단 비율(%)
705	78	627	88.94%

그림 1에 제시된 누적 생존함수와 부표 1의 생명표를 보면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는 재학기간 중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5]. 부분적으로는 0

개월, 3~4개월, 16개월, 28~29개월에는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 참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학생들을 제외하면 모두 여름방학 시점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겨울방학기간으로 볼 수 있는 10~11개월, 22~23개월에는 다른 기간과 유사한 수준의 아르바이트 참여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는 주로 방학 중에 이루어지며, 계절에 따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아울러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시점인 25개월부터 27개월까지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이 없는 것을 통해 수능을 앞둔 학생들이 학업 이외의 활동을 지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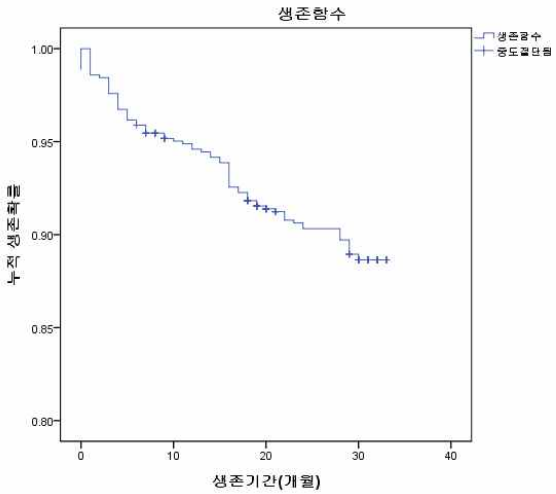

그림 1. 누적 생존함수

2. 아르바이트 참여에 대한 가구소득의 비례성가정 검정

선행연구에서 가구소득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참여 시간이나 노동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양정호, 2004; 유성렬,

5) 생존함수의 패턴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그래프에서 Y축의 범위를 0.8~1.0으로 제한하였다.

2005, 2010; 황나영 외, 2012; Staff & Mortimer, 2007). 아울러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아르바이트 참여 계기 및 실태가 이외 학생들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안선영 외, 2014; 황나영 외, 2012). 이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르바이트 참여에 대해서는 이외 집단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가구소득에 따라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 시점 및 영향요인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을 상정하고, 그에 따라 소득하위25%집단을 구분하여 생존함수를 추정한 결과 그림 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6] 아울러 소득에 따른 아르바이트 참여 양상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확인하고자 생존함수의 동일성에 대한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모든 테스트에서 생존함수가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소득하위25%집단-이외집단의 생존함수에 대한 동일성 검정

	log-rank test	wilcoxon test	-2LL test
χ^2(df)	20.623(1)***	19.170(1)***	18.26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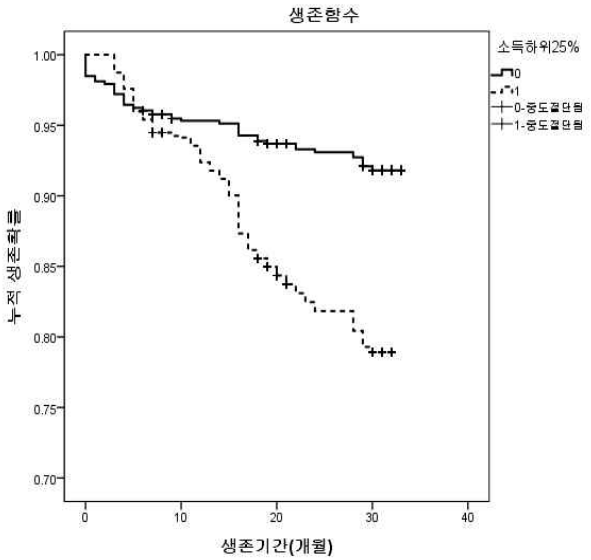

그림 2. 소득하위 25% 집단 - 그 이외 집단의 생존함수

6) 전체집단의 생존함수를 추정한 결과와 같은 이유로 Y축의 범위를 0.7~1.0으로 제한하였다.

그림 2를 보면 소득하위25%집단은 고등학교 입학 후 7~8개월 이후 이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7].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의 직·간접비용이 늘어나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업 이외의 활동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기대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프 상으로는 소득하위25%집단의 학생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외 집단과의 차이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따라서 소득하위25%집단의 더미변인에 대한 Schoenfeld Residual 검정을 통해 시간에 따라 소득의 효과가 변화하는 양상이 유의한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소득의 효과는 시간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PH가정이 기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에 있어서는 소득집단을 층화변인으로 설정하여 층화콕스모형을 분석하였다.[8]

표 4
소득하위25%집단에 대한 PH가정 검정

변인	추정치	표준오차	95% CI	P(PH)
절편	39.5000***	2.4626	(34.5954 - 44.4046)	〈0.0001
소득하위25%	13.0676*	5.4738	(2.0014 - 24.1337)	0.0218

***p<.001, *p<.05

3. 층화콕스모형을 적용한 아르바이트 참여 영향요인 분석

층화콕스모형은 층화된 집단별로 설명변인의 회귀계수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집단별 회귀계수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집단별로 회귀계수가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날 경우 각 집단별로 회귀계수를 보고하고 집단에 따른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개별변인에 대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7)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교차점(7~8개월) 이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wilcoxon test=2.726(1), n.s.).

8) 실제 분석 결과 소득과 광역시 변인의 PH가정이 위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특별시, 광역시, 이외지역 간의 비교에서 광역시와 이외지역 사이에서만 PH가정이 위배되었다. 이에 지역구분에 따른 층화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득 변인만으로 모형을 층화하였다.

집단 간 회귀계수의 차이를 상정한 모형과 단일모형과의 적합도 비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투입된 설명변인들과 층화변인 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을 설정하여 단일모형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집단별로 회귀계수가 동질적이라는 가정이 충족되어 단일모형의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9)]

표 5

층화된 집단별 회귀계수의 동질성 검정

-2LL(df)	모형1: 단일모형	모형2: 상호작용 모형	모형1-모형2
MI dataset 1	90.8984(12)	113.2847(24)	22.3863(12)
MI dataset 2	90.1913(12)	111.2276(24)	21.0363(12)
MI dataset 3	86.3461(12)	116.0045(24)	29.6584(12)
MI dataset 4	90.5575(12)	112.3381(24)	21.7806(12)
MI dataset 5	93.2782(12)	117.8858(24)	24.6076(12)
Combined F (df, ddf)	7.3537*** (12, 2154.78)	4.6519*** (24, 1605.44)	1.6554 (12, 56.76)

***p<.001

소득을 더미변인으로 전체집단을 층화한 후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설명변인들을 투입한 층화콕스모형의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성별과 부모의 학력은 모두 아르바이트 참여 시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모학력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가구소득에 의해 전체집단이 층화되면서 가구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모학력이 아르바이트 참여에 대한 효과의 유의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 효과의 경우 지역규모가 커질수록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별시는 이외의 지역에 비해 아르바이트 참여 위험이 62.33%(p<.05) 가량 낮고, 광역시의 경우 33.96%(p<.1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르바이트 참여 또는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주지 변인의 영향력이 일관

9) "5개의 MI 데이터세트에서 개별적으로 보고된 적합도 지수들을 Schafer(1997)의 공식에 따라 하나의 값으로 계산한 Combined χ^2(Allison, 2000)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되게 보고되지 않는 가운데, 특별시와 광역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았다는 양정호(2004)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지역 규모가 커질수록 교육환경이 더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학업 외 활동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부모와의 관계는 선행연구와 달리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연구가 부모와의 관계를 사회자본 형태로 제시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정도를 묻는 문항을 사용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6

아르바이트 참여 시점에 대한 콕스비례위험모형 추정 결과

변인	추정치(β)	표준오차	위험비 (hazard ratio)
성별(1=여성)	0.0092	0.2447	1.0092
부학력	-0.0427	0.0636	0.9582
모학력	0.0998	0.0778	1.1049
거주지			
특별시	-0.9764***	0.4198	0.3767
광역시	-0.4149+	0.2440	0.6604
부모와의 관계	-0.0032	0.2353	0.9968
학교계열(1=전문계고)	0.0890	0.7753	1.0931
중학교3학년 성적	-0.6179*	0.2056	0.5391
고등학교 성적	-0.1110	0.1221	0.8950
학교생활 만족도	-0.2718+	0.1554	0.7620
교우관계 만족도	0.3345+	0.1822	1.3973
중학교3학년성적 × 학교계열	0.5229*	0.2526	1.6869

+p<.10, *p<.05 ***p<.001

다음으로 중학교 3학년 때의 성적이 높은 학생은 고등학교 입학 후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교 입학 후의 성적은 아르바이트 참여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중학교 때의 성적은 진학하는 고교

계열뿐 아니라 동일계열 내에서도 학교의 질적차이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김기남, 2011; 이두휴, 2014). 이에 고교계열별로 중학교 때의 성적에 따른 학생구성이 아르바이트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중학교 3학년 성적과 고등학교 계열의 상호작용항을 함께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중학교 3학년 성적이 고등학교 입학 후 아르바이트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계고에서 보다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고교유형별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일반계고에 진학한 학생들 중 중학교 때의 성적이 낮은 학생은 대학진학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내용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학업 외 활동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이들이 진학하는 학교의 풍토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학습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반면, 전문계 고등학교는 고교계열의 특성상 학업성취에 따른 학생구성과 무관하게 재학 중 근로경험에 대해 우호적인 풍토가 형성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전문계고 학생들이 중학교 때의 학업성취와 무관하게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것은 직업중심 교육과정의 영향이 일정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계고 학생들은 재학 중 근로경험을 통해 향후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뿐만 아니라 전문계고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나 현장실습 처우가 열악한 실태(김지경, 이광호, 2013)와 전문계고 학생의 재학 중 근로경험이 졸업 후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박창남, 2010) 등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 아르바이트 처우 개선 및 전문계고 학생이 경험하는 아르바이트가 진로탐색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학생은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은 반면 교우관계가 좋은 학생들은 아르바이트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두 변인 모두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하였으나 표본수가 적은 것을 감안하면, 분석 결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았다. 그러나 선험적인 기대와 달리 교우관계가 좋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먼저 학생들이 학교친구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학교 내 친구관계 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친구들과의 관계까지 염두에 두고 응답을 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최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본인의 소비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유성렬, 2005; 김예성, 김선숙, 2009)와 관련지어 봤을 때 친구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가능성을 생각할 수도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고등학생의 최초 아르바이트 경험 시점을 결정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기존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연구들이 주로 아르바이트 참여 혹은 아르바이트 시간에 주목하여 연구를 수행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시점을 분석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최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점증하고 있으며,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는 추세에서 어떠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조기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지 구명하고자 한 것이다. 대개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이 열악하고, 대다수의 학생이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고려할 때 어떠한 배경의 학생들이 일찍부터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적인 함의를 도출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전술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생존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구소득에 따라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 시점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다는 가설을 상정하고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 하위25%집단의 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일찍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에 대한 직·간접비용이 늘어나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업 이외의 활동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계층 간 교육의 직·간접비용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중학교 3학년 당시에 성적이 낮은 학생은 고등학교 입학 이후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일반계고에서 보다 두드러졌다. 이러한 실태에 대하여 진학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반계고에서 중학교 때의 학업성취에

따른 학생구성의 차이가 이전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이 학업 외 활동으로 유출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것이 학습결손의 누적으로 이어져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개연성이 있음을 포착하였다. 전문계고 학생들 또한 재학 중 근로경험 자체가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아르바이트나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한 학습결손이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처우 개선과 아울러 전문계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향후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상술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불리한 계층에 있는 학생들은 아르바이트에 조기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아르바이트 참여를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지만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더라도 뚜렷한 목표 및 부모의 지도와 관여가 부족한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부정적인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한경혜, 2000)는 결과를 감안하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이 이들의 학습결손과 부정적인 경험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층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학교생활 경험의 부재로 인하여 이들의 성취수준과 이후의 진학 및 취업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개연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대책 마련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점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환경을 점검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이들의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사회, 가정의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연구들이 횡단 자료를 이용하여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나 아르바이트 노동 시간 등의 양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던 것과 달리 어느 시기에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지와 같은 질적인 측면을 포착하였다. 아울러 영향요인들의 효과를 종단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효과의 변화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이해하는 데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초 아르바이트 참여 시점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의미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의의를 가진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수집된 2차 자료의 사용으로 인한 한계점을 갖는다. 먼저 학업성취와 아울러 중학교 때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은 향후 고등학교 입학

경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중학교 때의 경험이 고교 입학 이후에 아르바이트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비행이나 가정 내 생활환경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3, 4차년도에만 조사되고 있어 이것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 이처럼 본 연구모형에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 시기를 결정하는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바, 향후 이를 보완하여 더욱 적확한 추정이 가능한 연구가 수행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기남 (2011). 경쟁주의와 학력격차가 불러온 도시 간 명문고 경쟁, 그리고 학생의 권리. **공간과사회, 35,** 70-104.

김기헌 (2003). 일하는 고등학생들: 재학 중 시간제 취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7**(6), 115-144.

김기헌, 유성렬 (2006).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종단분석.**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예성 (2006). 중고등학생 아르바이트 경험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연구, 10**(4), 553-576.

김예성, 김선숙 (2009).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이 경비행 및 중비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로탐색. **사회복지연구, 40**(1), 139-161.

김종성, 이병훈 (2010).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요인 및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1**(3), 33-59.

김지경, 이광호 (2013).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도종수 (2001).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실태와 대책. **사회복지정책, 13,** 103-129.

박창남 (2010). 청소년의 재학 중 노동경험이 고교졸업 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7**(4), 107-128.

박창남, 도종수 (2007). 청소년의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4**(5), 345-374.

안선영, 김희진, 강영배, 배경내 (2013).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안선영, 황여정, 이수정, 이로사 (2014).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정호 (2004). 고등학생의 재학 중 아르바이트 참여요인 분석: 청년패널조사의 위계적 일반화선형모형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4**(1), 17-37.

유성렬 (2005).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6**(1), 255-282.

유성렬 (2010).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7(4), 47-66.

이두휴 (2014).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학생의 쏠림현상에 관한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21(3), 61-91.

이철위, 박창남, 정혜영 (2000). **청소년파트타임 고용실태와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임영식, 남기성, 조금주, 정경은, 김윤나 (2011). **2011 청소년아르바이트실태조사연구.** 경기: 고용노동부.

장원섭 (2001). 중·고등학생 시간제 취업 경험의 의미. **직업교육연구, 20**(2), 95-108.

조금주 (2010). 청소년 아르바이트 및 부당 노동 실태 추이 분석. **청소년학연구,** 17(1), 297-319.

조경엽, 유진성 (2013). 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KERI Insight**, 9, 1-19.

한경혜 (2000).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그 과정과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1(2), 153-180.

황나영, 이자형 (2011). 전문계 고등학교 여학생 아르바이트의 경험과 의미. **교육인류학연구,** 14(3), 233-260.

황나영, 이자형, 이기혜 (2012). 가정배경과 학교적응을 중심으로 한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시간 결정요인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3**(1), 223-250.

Allison, P. D. (2000). COMBCHI. Retrieved December 15, 2014, from http://www.ssc.upenn.edu/~allison/combchi.sas

Allison, P. D. (2001). *Missing Data.* Thousand Oaks, CA: Sage.

Bachman, J. G., Staff, J., O'Malley, P. M., Schulenberg, J. E., & Freedman-Doan, P. (2011). Twelfth-grade student work intensity linked to later educational attainment and substance use: New longitudinal evid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7*(2), 344-363.

D'Amico, R. J. (1984). Does employment during high school impair academic progress?. *Sociology of Education, 57,* 152-164.

Finch, M. D., Shanahan, M. J., Mortiemr, J. T., & Ryu, S. (1991). Work experience and control orientation in adolesc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5), 597-611.

Hansen, D. M., & Jarvis, P. A. (2000). Adolescent employment and psychosocial outcomes: A comparison of two employment contexts. *Youth and Society, 31*(4), 417-436.

Hirschman, C., & Voloshin, I. (2007). The structure of teenage employment: Social background and the jobs held by high school seniors.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25,* 189-201.

Lee, J. C., & Staff, J. (2007). When work matters: The varying impact of work intensity on high school dropout. *Sociology of Education, 80,* 158-178.

Mihalic, S. W., & Elliott, D. S. (1997). Short and long-term consequences of adolescent work. *Youth and Society, 28,* 464-498.

Mortimer, J. T., Finch, M. D., Shanahan, M. J., & Ryu, S. (1992). Work experience, mental health, and behavioral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1), 25-57.

Mortimer, J. T., Finch, M. D., Ryu, S., Shanahan, M. J., & Call, K. T. (1996). The effects of work intensity on adolescent mental health, achievement, and behavioral adjustment: New evidence from a prospective study. *Child Development, 67*(3), 1243-1261.

Mortimer, J. T., & Johnson, M. (1998). Adolescent part-time work and educational achievement. In K. Bourman, & J. Reisman (Eds.), *Becoming a worker.* Norwood, NJ: Ablex.

Roisman, G. I. (2002). Beyond main effects models of adolescent work intensity, family closeness, and school disengagement: Mediational and conditional hypothese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7,* 331-345.

Rubin, D. B. (1987). *Multiple imputation for nonresponse in surveys.* NY: Wiley.

Ruhm, C. (1997). Is high school employment consumption or invest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15,* 735-776.

Singh, K., Chang, M., & Dika, S. (2007). Effects of part-time work on school achievement during high school.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1(1), 12-22.

Staff, J., & Mortimer, J. T. (2007). Educational and work strategies from 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Consequences for educational attainment. *Social Forces, 85*(3), 1169-1194.

Staff, J., & Mortimer, J. T. (2008). Social class background and the school-to-work transition. *New Direction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19,* 55-69.

Warren, J. R., LePore, P. C., & Mare, R. D. (2000). Employment during high school: Consequences for students' grades in academic course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7*(4), 943-969.

ABSTRACT

Survival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high school students' first experience of time part-time work

Yi, Kihye* · Shim, Jaehwee* · Woo, Sunyoung*

This study explores 1)high school students' decisions and their participation in work experience, and 2)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ir decisions and the time, using the 1st-4th data of Youth Panel(YP2007) survey. Th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s show that 1)most high school students do not participate in part-time work during their period of attendance at school, and 2)for those who decide to participate in part-time work, the most likely time to work is the summer vacation of their freshman and junior year. Furthermore, the students from the bottom quarter of household incomes were shown to start their work earlier than the others. Coming from large regions residence tends to delay the time of the first work experience, while lower academic achievements at middle school hastened it. However, middle school achievements had greater effects on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than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While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decision to take up part-time work, peer relationships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working. This implies that students from poorer backgrounds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part-time work, and this can be critical in reducing time which could otherwise be devoted to academic achieve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high

* Korea University

school students' working conditions need to be developed and that the working experience needs to be more be helpful for students' career planning.

Key Words: youth's part-time job, learning deficit, school-adjustment, survival analysis

투고일: 2015. 12. 14, 심사일: 2015. 12. 22, 심사완료일: 2016. 1. 25

<부표 1> 생명표

시간	투입사례 수	중도절단 사례 수	아르바이트 참여	생존비율	위험률
0	705	0	8	.9887	.011
1	697	0	2	.9858	.003
2	695	0	1	.9844	.001
3	694	0	6	.9759	.009
4	688	0	6	.9674	.009
5	682	0	4	.9617	.006
6	678	1	2	.9589	.003
7	675	4	3	.9546	.004
8	668	5	0	.9546	.000
9	663	6	2	.9517	.003
10	655	0	1	.9503	.002
11	654	0	1	.9488	.002
12	653	0	2	.9459	.003
13	651	0	1	.9445	.002
14	650	0	2	.9416	.003
15	648	0	2	.9386	.003
16	646	0	9	.9256	.014
17	637	0	2	.9227	.003
18	635	8	3	.9183	.005
19	624	10	2	.9154	.003
20	612	7	1	.9139	.002
21	604	4	1	.9124	.002
22	599	0	3	.9078	.005
23	596	0	1	.9063	.002
24	595	0	2	.9032	.003
25	593	0	0	.9032	.000
26	593	0	0	.9032	.000
27	593	0	0	.9032	.000
28	593	0	4	.8971	.007
29	589	3	5	.8895	.009
30	581	350	2	.8864	.005
31	229	165	0	.8864	.000
32	64	57	0	.8864	.000
33	7	7	0	.8864	.000